



■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모색을 위한 3차 토론회 결과보고(2016.06.09)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평가의 변화이고, 이는 수업과 기록의 변화 및 일반 학기로 확대될 때만이 도입 취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4회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3차 토론회를 지난 6월 1일(수),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평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함.
-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와 △지은림 경희대 교수가 공동 발제하고, 이에 대해 △김덕년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김선희 명일중 수석교사, △박수경 교육부 교육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석함.
- ▲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지필 평가(중간·기말고사)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평가가 과정 중심의 형성평가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함. 이렇게 평가가 전환되었을 때, 교사는 일제식 설명 수업에 머무를 수 없어 수업 개선의 동기가 생김.
- ▲ 더불어 과정 중심의 형성평가로 전환되었을 때, 그 평가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 다만 좋은 평가와 수업을 위한 핵심으로 성취기준이 중요한데 현재의 성취기준은 목표가 모호하고, 평가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교사가 평가와 수업의 기준으로 삼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 살펴본 자유학기제의 수업·평가·기록의 개선은 중학교 전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함. 이를 가로막는 제도의 문제를 4차 토론회 때

다들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4차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수) 3차 토론회를 본 단체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자유학기제의 핵심인 학교 수업 및 평가·기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지필 평가(중간·기말고사)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평가가 과정 중심의 형성평가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함.

앞선 토론회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단순한 진로체험활동을 넘어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첫 발제로 나선 경희대 지은림 교수도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학교 수업·평가의 개선임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1차 토론회 경희대 성열관 교수의 강조점과 같이 중간·기말고사가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중간·기말고사가 없다고 평가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는 결과 중심의 총괄평가에서 과정 중심의 형성평가로 평가의 강조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은림 교수는 평가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로 우리 교육이 평가주도의 교육(Evaluation-Driven Education)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평가’가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정하게 되는 역행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하였습니다¹⁾.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1) 2015 이형빈, (출처 : 지은림 교수 발제문)

지은림 교수는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총괄평가에만 집중해왔지만, 자유학기제가 기폭제가 되어 중학교 다른 일반학기나,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성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형성평가를 통해서 기존 지필고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학생의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 즉 수업 태도, 노력, 성실성 등이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교사의 더 나은 수업을 위한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OECD는 2015년부터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인 PISA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도입하였고, 이것을 21세기 교육이 길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은림 교수는 ‘개인 수준의 문제해결력’에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평가로 방향이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도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학교 수업을 통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위해서 평가방법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평가가 교육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렇게 평가제도의 동향이 세계적으로 변해가는 추세인데 우리 학교 현장의 평가제도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시도된 평가방법의 변화가 한 학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학교 전 과정, 고등학교 전 과정까지 퍼져 체제 변화의 돌파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학교 평가가 과정 중심의 형성평가로 전환되었을 때, 그 평가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는 제1발제를 통해 기록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교사가 애써 성취기준에 맞추어 좋은 수업모델들을 이용하여 훌륭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실한 기록의 문제는 좋은 수업의 내용도,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모든 활동과 수업을 요약하여, 한 학기 단위로 기록하고 있는데, 생활기록부를 받아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성장과 성취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서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발제자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여 [그림 1]과 같은 ‘친절한 성적표’ 양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성적표가 과목별 종합점수만 표기하는데 반해, 학생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담아내고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생마다 질적인 내용의 차이를 드러내 줄 수 있으면서 성취도 향상의 차이까지 보여주는 기록의 예시입니다. 아래의 성적표를 통해 발제자는 지필평가의 범주를 벗어나서 학생의 역량을 입체적으로 평가하여 기존의 지필평가가 담지 못하는 학생의 유의미한 능력에 대한 평가를 담아낼 수 있는 성적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림 1] 친절한 성적표 모델

과목	평가영역(코드번호)	평가 방법	성취도		세부특기사항
			1차	2차	
도덕	독해 능력(01)	학습지 평가	C	A	학기 초 수업에 대한 흥미가 약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고 보고서 작성과 발표 능력이 향상을 보임. 발표태도는 매우 우수함. 특히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보임.
	개념 이해(02)	지필 고사	D	C	
	논리적 사고능력(03)	논술문 작성	C	B	
	창의적 사고능력(04)	학습지 질문 평가	C	A	
	지적 호기심(05)	수업 태도 관찰	C	A	
	작문 능력(06)	논술문 작성	C	B	
	발표 능력(07)	토론, 발표	C	A	
	디자인 능력(08)		-	-	
	책임감(09)	보고서 작성	C	A	
	협업 능력(09)	모듬 토론	B	A	
	실천성(11)		-	-	

출처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문

실제로 토론자인 김선희 명일중학교 수석교사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학기 동안의 바뀐 수업과 평가를 아래 같이 기록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학부모와 함께 공유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2] 자유학기제 기록 사례

국어 성장편지

1학년 *반 **번 ***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이번 학기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보여준 학습 상황에 대해 교사가 관찰하고 느낀 점을 보내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학습과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수업 중의 태도와 학습활동 내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장편지는 학생 이해의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국어과 교사 * 드림

1. 학생의 학습 내용 성취

교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문 쓰기에서 선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잘 쓸 수 있으며 우수작으로 선정됨. ■ 주 1회 실시하는 칼럼요약에서 5회 중 5회 제출하였으며 요약능력이 뛰어나고 완성도가 매우 높음. ■ 국어와 가정이 만나 이루어진 융합수업 '영양교사 되기 프로젝트'에서 모듬원들과 협력하며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즐겁게 활동함 ■ 문법 단원에서 제시된 단어의 짜임새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음운 체계의 개념을 국어 화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	---

자기 평가	<p>■ 설명문 쓰기 활동 하면서 느낀 점</p> <p>설명문을 실제로 쓰는 것은 처음이라서 내가 잘 쓸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생각보다 쓰기도 쉬웠고,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평상시 내가 관심이 많았던 분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 오히려 조사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글자수를 맞추기 위해 요약하는 데 더 힘이 많이 들었다. 어쨌든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된 활동이고, 다행히 우수작으로 뽑혀서 매우 뿌듯했다.</p>
----------	---

* 학생의 자기평가는 ‘메가테스트 **샘의 논술교실’에 올린 내용입니다. 자녀의 맞춤법, 띄어쓰기 상태 파악을 위해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록하였습니다

출처 : 김선희 명일중학교 수석교사 토론문

■ 평가의 변화는 수업과 기록의 개선을 유도함.

토론자 김덕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란 학생의 성취도달도를 고려하여 수업이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야 하며 과정중심평가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의 성장을 기록으로 담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기록은 하나의 연속된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각 단계가 연결되지 못하면 수업의 혁신이나 평가 개선의 문제가 교사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 3]에서 한 교사의 고민을 다루었습니다.

[그림 3] 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수업	평가	기록
<p>○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p> <p>-과학적 탐구기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등</p> <p>○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p> <p>-강의+토의 -과제연구, 실험, 조사, 견학</p>	<p>○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p> <p>-과학적 탐구기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p> <p>○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p> <p>-관찰평가 -보고서평가 / 발표평가 -동료평가</p>	<p>-관찰은 그날 입력하기 -자유롭게 기록하기 -이 수행평가들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요소들 잊지 않기</p> <p>-연구과정에서 수업 준비도와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기록해주기</p>
<p>모둠원과 열심히 의견을 나눔(15.8.31)더 많은 주제를 생각하고자 함(15.9.7)한달 동안 수업시간에서 토의하고 준비했던 연구계획을 PPT로 제작하여 발표자에게 자료를 제공함. 다른 모듬의 계획 발표를 경청하며, 질문과 조언을 해줌(2회)(15.10.26) 단열재, 발열재 조사 및 설문지 작성(15.11.2)</p>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3회에 걸친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달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학생의 자기성찰 평가 방법을 활용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SNS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상황 및 평가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하였다.(황은희, 2015)

출처 : 김덕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토론문

■ 좋은 평가와 수업을 위한 핵심으로 성취기준이 중요한데 현재의 성취기준은 목표가 모호하고, 평가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교사가 평가와 수업의 기준으로 삼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김진우 공동대표는 자유학기제가 지필고사의 한계를 벗어나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하고 수업을 기획하여 교사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지만, 이렇게 시도된 훌륭한 수업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취기준이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데 현재의 성취기준은 양이 너무 많고, 또 교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어떠한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취기준이나 역량의 개념들이 너무 모호하거나 포괄적이면, 교실 수업에서 성취기준을 수업의 목표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상 제시된 성취기준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수행평가를 통해 평가되어야 할 능력들이지만, 교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지 객관식 평가로 평가되는 모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제자는 현재의 성취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수업과 평가에서 실행될 수 있고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중심의 수업과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중심의 평가는 학생들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고, 배움의 본질을 구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객관식 평가도 필요하지만, 기존 방식처럼 수업평가와 서열화를 위한 객관식 평가만을 강조하는 것은 배움의 본질적 부분, 또는 질적인 부분을 배제한 것입니다.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식 평가에 적절한 포지션을 주면서, 객관식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평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성취기준은 비록 핵심성취기준 등의 개념으로 양이 줄긴 했지만, 일반학기에서는 물론 자유학기에서도 여전히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성취기준이든 핵심역량이든 수행능력이든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과 평가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수업을 하는 교사가 본인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수업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내야 진정한 수업 혁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 자유학기제의 수업·평가·기록 개선은 중학교 전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함. 이를 가로막는 제도의 문제를 4차 토론회 때 다룰 예정임.

자유학기제가 한 번의 ‘예외’ 학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중학교 전 과정으로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통한 본질적인 학교 혁신은 모든 학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박수경 교육연구사는 자유학기의 교실 수업의 변화가 한 학기에 한정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맞춤형 활성화 계획이나, 자유학과 일반학기 연계 등의 연구 추진 등을 설명하면서 자유학기제의 정착과 다른 제도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자유학기제가 공교육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요구

1. 한국적 상황에서 수업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가방법의 변화입니다. 서열화와 점수 매기기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는 평가방법의 개선이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중학교 전 과정, 고등학교까지 확산하여야 합니다.
2.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학생마다 질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성적표, 교사가 학기 동안 수업하고 평가한 것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보다 친절한 기록과 성적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교사가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난 성취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성취기준의 양을 조정하고, 수업과 평가에서 실행될 수 있고,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자유학기제의 수업·평가·기록의 개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입전형, 고입체제, 대입전형의 제도적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마지막 4차 토론회를 갖습니다. 자유학기제 마지막 토론회인 4차 토론회는 6월 16일(목) 오후 2시 본 단체 3층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한 고입전형 및 고교체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토론회명	■ 발제 □ 토론
1차 05/04(수) 오후 2시	자유학기제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까지 왔는가?	■ 성열관 교육대학원장(경희대학교)
		■ 안상진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기숙영(학부모)
		□ 이수광 선임연구위원(경기도 교육연구원)
		□ 이종걸 교사(근명중학교, 좋은교사운동)
2차 05/17(화) 오후 2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일랜드, 일본
		■ 서우철 장학사(의정부교육지원청 꿈이룸학교) : 국내 꿈이룸학교
		■ 송순재 교수(감리교 신학대학, 삶을 위한 교사대학 이사장) : 덴마크
		□ 김은정 선임연구위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김진우 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
3차 06/01(수) 오후 2시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평가의 개선과 확산 가능성을 살핀다.	■ 지은림 교수(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덕년 장학사(경기도교육청)
		□ 김선희 수석교사(명일중학교)
		□ 예혜란 과장(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안상진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4차 06/16(목) 오후 2시	자유학기제를 통한 고입전형 및 고교체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 김성천 장학사(경기도교육청)
		□ 김태훈 교사(용마중학교)
		□ 성기선 교수(가톨릭대학교, 경기도울곡교육연수원장)
		□ 이광호 교장(이우학교)

2016. 6.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선임연구원 김은정(02-767-4044/내선번호 503)